

선암사·인각사 도난 정보 돌려 받을수 있나?

‘도난문화재’ 판결 때 가능

문화재청, 경매 사이트 등서 삼삼조사도·발원문 회수

최근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에서 회수된 선암사 팔상도 등 정보 문화재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문화재보호법 제81조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82조에는 매장문화재나 도난문화재임을 알고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순천 선암사, 군위 인각사 등에서 도난당했다가 이번에 회수된 정보 문화재는 재판을 거쳐 도난문화재임이 확인되면 해당 사찰로 되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문화재청이 보관하게 된다.

이번에 회수된 정보문화재를 보관했던 사람들은 형사처벌 된다. 문화재청 사법단속반이 내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문의를 하지 않고 몰래 보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불법 거래를 하려고 한 것은 분명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만약 도난 문화재임을 몰랐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한편 순천 선암사가 소장하던 불화가 불법 거래 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문화재청 사법단속반은 4월 12일 강서경찰서 형사와 강력 1팀과 공조 수사를 통해 선암사 팔상도 2점이 서울의 한 경매회사에서 매물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유자의 변호인을 통해 정보문화재를 회수했다.

1780년 조성된 것으로 조성시기와 배경, 시주자를 알 수 있는 화기가 남아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선암사 팔상도는 8폭 모두 도난당했으나 이번에 사문유관상과 설산수도상만이 회수됐고 나머지 6폭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또 모 제약회사 회장과 경주 모 대학 교수의 저택을 압수수색해 선암사 ‘삼삼(33)’ 조사도 3점과 군위 인각사 불복장 발원문 1점을 각각 압수했다. 선암사 삼삼조사도는 11폭 가운데 4폭이 도난당했지만 이번에 3폭이 회수됐다.

문화재청 사법단속반 강신태 반장은 “선암사만해도 40점이 이상의 정보문화재의 도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문화재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문화재가 든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국민이 우리 문화재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천태종 ‘정산 총무원장 시대’ 출발

천태종 제14대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4월 9일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취임했다. 각 종단 대표와 정관계 인사 등 1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법회는 26년간 천태종 총무행정을 이끌어왔던 윤덕 전 총무원장의

이임식을 겸했다. 법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길을 넓혀 달라’고 말했다.(사진 오른쪽부터 종정 도용 스님, 전 총무원장 윤덕 스님, 정산 스님) 단양=김주일기자

“공원입장료 폐지 마땅” 조계종, 공청회서 주장

국회사회복지포럼이 4월 1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국립공원입장료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기획국장 성목 스님은 “종교 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상당수 국민들이 억울하게 공원입장료까지 물고 있음에도 이들의 부당한 피해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공원입장료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용수 기자

전통불교문화사업센터 재설계

9월 착공, 승가자문위원 50명 위촉

공주 마곡사 인근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전통불교문화사업센터 재설계가 전면 백지화되고 9월에 새로 착공된다. 불교문화사업단장 현고 스님은 4월 1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2004년 12월 센터 건립공사 착공 후 사업 진행 중 지체 안에서 60여기의 조선시대 후기 기와가마터가 집중 발굴됨에 따라 발굴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사업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삼풍건축과 기본설계비변상 및 지위변경에 합의하고 2006년 1월 이로재건축사사무소와 새로운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날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 11명과 중앙총회회장 범등 스님을 비롯한 중앙총회회장 16명,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을 비롯한 중진스님 17명, 총무부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스님 6명 등 총 50명이 승가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남동우 기자

수목장에 비석 설치 금지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입법예고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에 심는 장묘방식으로 인해 친환경적 장묘법으로 불리는 ‘수목장(樹木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은 4월 5일, 환경 훼손이 적은 수목장 등 자연장(自然葬)의 설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수목장을 장려하고 부자유당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자연장을 ‘화장 후 뼈가 루를 꽃밭이나 잔디, 나무 아래 등에 묻는 장묘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 구역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되며, 100㎡ 이상일

경우 지자체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00㎡ 이상의 경우에는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으나 종교 법인일 경우 재단설립이 필요치 않다. 비석 등 각종 석조를 설치하는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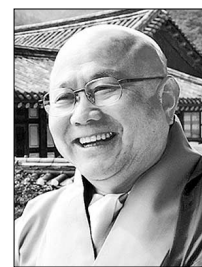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수목장을 시작한 영천 은해사의 경우, 지난해 2월 사찰 인근 1만여 평의 소나무 숲에 수목장을 개설한 뒤 불과 1년 만에 100여 그루의 나무에 위패를 안치했으며 올해에도 한 달에 10건 이상의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월정사 봉선사 화계사 금천사 내원정사 갑사 표충사 등 전국 20여 곳의 사찰이 수목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비 기자

은해사 주지후보 법타스님 선출

8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제23대 주지후보로 현 주지 법타 스님이 선출됐다.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조대 대구불교방송 사장, 제20·22대 은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대구 불교방송운영위원장, 동국대 석림동장회장, 경주권퍼스정각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배지선 기자

달라이라마 6월에 한국올까?

광주시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초청, 비자발급 신청

그동안 여러 차례 방한이 좌절됐던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4월 13일 ‘198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달라이라마가 광주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으며, 6월 한국방문에 필요한 비자발급을 요청해 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또 “달라이라마가 초청장 답신을 통해 방한하게 되면

평화와 비폭력의 믿음에 기초해 아시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광주정상회의는 6월 15일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행사로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고프바초프 등과 퍼크워시 코퍼런스 등 3개 수상단체 등이 참석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노대행 발행·편집인·박혜철 편집국장·위영란 인쇄인·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www.sgsb.ac.kr

대학원 학생모집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I. 모집학과 및 과정

모집학과	전공	취득학위
불교학과	불교학	불교학 석·박사
	명상학	명상학 석·박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상담학 석·박사
	자아초월상담학	
	요가치료학	
	미술치료학	

II. 지원자격

-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부전공 무관).
- 박사과정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예정자

III.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2006. 5. 15(월)~5. 25(목)
 - 장소: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 전형일시: 2006. 5. 27(토) 10:00
- 전형방법: 면접 및 구술고사
- 합격발표: 2006. 6. 2(금) 10:00

IV. 특전

-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 불교학전공: 서울대, 고려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협회과의 연계 교육, 우수학생 전액 장학금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90-2800(대) 02)890-2811~2(直) / Fax 02)890-2899
우) 153-8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www.bojangsa.co.kr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회원 모집

- ◆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 믿을 수 있습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인가), 보문중·고(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이사장:전택해스님)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 시설이 뛰어납니다.(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 ◆ 수익금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됩니다.
- ◆ 교통이 편리합니다. 전월1호선(관악역) 도보 10분거리
- ◆ 주차가 편리합니다. 자체주차장 및 공용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 ◆ 좌절용 우백호가 분명한 명당입니다.
- ◆ 안양예술공원에서 가족소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02) 534-4444, (031) 471-3322
우) 430-8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324-10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